

목포, 코로나19 확산 방지 '무관용'

유관기관 합동 16일까지 특별 방역기간 운영

오미크론 5명 감염...선제검사 주 1회 권고

목포시가 오는 16일까지를 특별 방역 강화 기간으로 운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호소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호소했다.

목포시의 경우 새해 들어서 확진자가 60명이 발생했는데 지난 4일에는 1일 역대 최고인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주요 발생 시설은 병원, 학교, 콜라텍, 목욕탕, 단란주점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A병원 환자 및 의료진 1,500명에 대한 전수검사와 일부 병동에 대해서 코호트 격리(84명)를 실시했다. 4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전교생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발생한 목포 확진자 중 일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에서는 지난해 12월 23일 최초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5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돌파감염도 상당수를 차지해 지난 4일 발생한 확진자 33명 중 31명이 돌파감염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는 각종 모임, 행사, 집회 인원을 당초 49명에서 20명으로 제한 권고한다. 외국인 고용사업장 등에 대한 선제 검사를 2주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하고, 역학조사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

수동감시 격리기간을 3일에서 5일로 연장한다.

학교방역에 대해서는 교육당국과 협의해 겨울방학 전 확진자 추가 발생시 원격 수업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예방접종을 독려한다.



고품질 장흥 매생이

장흥군 대덕읍 내저마을 어민들이 6일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바다에서 건져 올린 매생이를 수확하고 있다. 장흥군 특산물 앞바다에서 생산되는 매생이는 부드러운 식감과 깊은 향으로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한다. /장흥군 제공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기적 선제검사 실시 여부,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출입자 등록 적용, 위험요소 집중 점검 등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시는 ▲불필요한 외출·이동·행사·모임 자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반드시 안심록, QR코드 체크인 실시 ▲입과 코를 가린 상태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는 진단검사

실시 ▲코로나19 예방 백신 추가 접종 및 백신 미접종 시민 접종 등을 당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2년이다 돼 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최근이 가장 위험한 국면이다"면서 "목포는 몇 차례 위기 국면을 겪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인내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이번 위기도 시민 여러분과 시가 적극 협력한다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모든 시민 여러분의 잠시 멈춤 동참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4메카 4시티’ 전략 추진 SOC 확충 미래동력 심혈”

2022 새해설계

정중순 장흥군수



“4메카 4시티 전략을 핵심과제로 지속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장흥을 만들겠습니다.”

정중순 장흥군수가 최근 신년사를 통해 스포츠, 문림의향, 안전, 친환경을 축으로 한 4(Four)메카 장흥을 만들어 군민 행복을 앞당기겠다는 새해 다짐을 밝혔다. 특히 청년이 돌아오는 장흥을 만들고,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군수는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메카’ 조성을 약속했다. 첫 단추로 지목되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올해 3월에 착공해 2024년 완공될 예정이며, 뒤따르는 2차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설 방침이다.

옛 교도소에는 정남진장흥 예술타운을 조성하고, 해동사를 중심으로 안중근의사 역사문화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문림의향 메카’ 실현도 강조했다.

소방·안전중심지로 도약을 위해서는 ‘안전 메카’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주민소득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친환경 메카’ 조성도 다짐했다.

정 군수는 올해 노인공경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수열그린도시 시정 4(4)시정 장흥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노인공경도시’ 구축을 위해 보훈회관 건립, 100세 건강 세탁소 운영, 노인회관 복지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여성친화도시’의 명성을 이어가

기 위해 여성 기술교육 지원, 여성리더대학 등 여성 행복 시책을 확대해 나간다. 놀이와 여가가 있는 아동 문화공간 확보, 진로체험 지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단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바이오피드산업단지 분양률을 제고해 지역경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SOC 확충사업, 탐진강 30리길 조성, 도시민 뉴타운 건설, 정남진 장흥랜드마크 조성 등 지역을 변화시킬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중순 군수는 “새로운 장흥으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에 군민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곡성, 공공데이터 ‘오픈 API’ 5건 개방 진도, 올해 하천정비 1,191억 투입

곡성군이 문화재, 향토정보 등과 관련된 오픈 API 5건을 개방했다고 6일 밝혔다.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란 특정 프로그램의 기능이나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이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을 말한다. 식당에서 손님과 요리사를 각각의 프로그램이라고 할 때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점원의 역할이 바로 API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을 오픈 API라 한다. 데이터를 표준화함과 동시에 프로그래밍하고, 이를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들과 공유함으로써 더욱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곡성군은 곡성군사, 문화재, 유래지, 관광지, 지역향토지 데이터 조회 서비스 총 5건을 오픈 API로 개방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한 후 오픈 API 활용 신청을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곡성군의 오픈 API는 행안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진행된다. 지난해 6월 ‘곡성군 문화재 및 향토정보 DB 구축 및 개방’이라는 과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억 원을 확보했다. 이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API 개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재해 취약지 기반시설 구축

진도군이 올해 1,191억원을 투입해 재해 위험에 대비한 하천 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6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침수 피해 우려 지역 해소를 위해 진도천, 군내천, 향동천, 청용천 등 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재해 취약지의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또 진도천의 남천 1교와 남천 2교를 경관 디자인으로 재가설을 추진한다.

주민설명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실시시설 계획 검토, 보상, 민원 등 사업별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수시 점검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진도읍 하수도 집중관리지역 정비 사업으로 유수지와 빗물 펌프장을 설치해 침수 예방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계, 공사 등을 조기 추진해 사업비가 신속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 건설교통과 관계자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의 적극적인 발굴과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확보에 매진하는 등 진도 군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광양, 제2기 외국어 SNS 기자단 위촉

광양시가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광양시 국제화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제2기 광양시 외국어 SNS 기자단’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외국어 SNS 기자단은 8개 언어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시민 대상 공고와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외국어 SNS 기자단원은 올해 말까지 1년간 시의 각종 국제행사와 문화예술, 관광, 음식·맛집, 국제교류 등을 다양한 언어로 작성해 전 세계에 홍보할 예정이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강진, 상수도 긴급복구반 운영 호응

강진군상수도사업소가 상수도 긴급 복구반 운영으로 지난해에만 민원 830건을 신속히 처리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상수도 긴급복구반은 지난 2013년부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320km에 이르는 상수관로와 220km에 이르는 마을상수도 관로의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있다.

매일 밸브와 가압장치 등 각종 시설물의 점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순찰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긴급 복구작업을 위해 복구 차량과 굴삭기 등 보수장비와 자재를 갖추고 있으며, 소방서 및 6개의 급수공사 대행업체와 연계해 신속한 복구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순천대, 동행인재양성 프로그램 성료

순천대가 고교를 직접 방문해 입시컨설팅, 진로 특강 등 다양한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순천대 입학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보성, 영암, 신안, 임자고와 도초고, 영암여고 등 4개교를 방문해 학생 총 312명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순천대 최수임 입학처장은 “입시박람회 참여나 온라인 입시 서비스 이용의 제약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고교생들이 대입 준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맞춰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순천대는 이외에도 정보소외지역을 위한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연 기자



일성기업, 금남동에 100만원 기탁

나주시 금남동은 반남면 소재 업체인 ㈜일성기업에서 최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일성기업 이순욱 이사는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성기업은 매년 설·추석 명절에 걸

쳐 성금 기탁 등 다양한 공헌사업을 펼치며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기탁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금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변동진 금남동장은 “기탁자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웃을 돕는 소중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